

BATH · 욕실

욕실 리모델링 비용과 방수 체크

물 새는 욕실은 없다, 방수부터 다시

매일 드나드는 공간이지만, 한 번 문제가 생기면 가장 골치 아픈 곳이 욕실입니다. 예쁜 타일과 수전을 고르기 전에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수층입니다.

욕실 리모델링, 결국 방수가 절반입니다

욕실은 집 안에서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타일이나 도기의 완성도만큼이나, 바닥과 벽 속에 숨어 있는 방수층의 시공 품질이 오래 쓰는 욕실을 결정합니다. 방수가 부실하면 아래층 누수, 벽지 곰팡이, 타일 들뜸 같은 문제가 몇 달 뒤에야 서서히 드러나기 때문에, 완공 직후의 만족감만으로 잘된 시공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대전 욕실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아쉬워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렴한 견적에 끌려 방수와 양생 과정을 서둘렀다가, 몇 해 지나 재시공 비용을 다시 치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비용을 아끼는 것과 꼭 필요한 공정을 생략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방수 체크리스트

계약 전후로 아래 항목만 짚어도 시공의 기본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현장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그대로 요구하기보다, 담당자에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물어보는 용도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 도막방수: 액체 방수재를 여러 겹 발라 이음매 없는 방수막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보통 2~3회 도포하며, 물이 새기 쉬운 코너와 배수구 주변을 꼼꼼히 보강하는지 확인합니다.
- 방수턱(문턱): 욕실 물이 바깥으로 넘지 않도록 출입구에 두는 턱입니다. 철거 후 방수턱을 새로 세우는지, 높이는 충분한지 살핍니다.
- 구배(물매): 물이 배수구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바닥에 주는 완만한 경사입니다. 구배가 부족하면 물이 고여 미끄럼과 곰팡이의 원인이 됩니다.
- 양생기간: 방수재가 완전히 마르고 굳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고 타일을 붙이면 방수막이 손상될 수 있어, 충분한 양생 시간을 확보하는지 확인합니다.
- 담수(물 채움) 테스트: 방수 후 바닥에 물을 받아 일정 시간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아래층 누수를 미리 막는 기본 점검입니다.



무아 시공 사례 · 우림필유 12단지

참고·방수와 하자 발생 여부는 배관 노후도, 건물 구조, 기존 방수층 상태 등 현장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위 항목은 일반적인 참고 기준이며, 특정 공법이 모든 현장의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진행은 현장 실측과 전문가 판단을 기준으로 하시길 권합니다.

욕실 공정, 보통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욕실 전체 리모델링은 대략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건물 상태에 따라 순서가 조정되거나 일부 공정이 추가·생략될 수 있습니다.

욕실 리모델링 표준 공정 흐름(현장에 따라 가감)

단계	공정	체크 포인트
1	철거·정리	기존 타일·도기 철거, 폐기물 반출, 배관 상태 확인
2	설비·배관	급수·배수·전기 위치 조정, 노후 배관 교체 여부 결정
3	방수	도막방수 2~3회 도포, 방수턱 시공, 양생
4	미장·구배	바닥 구배 잡기, 벽·바닥 먼 정리
5	타일	벽·바닥 타일 시공, 줄눈 마감
6	도기·수전 설치	양변기·세면기·수전·거울·수건걸이 설치
7	실리콘·마무리	코너 실리콘, 청소, 누수·작동 점검

건식·습식, 크기별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욕실 비용은 크기, 건식·습식 구성, 타일·도기 등급, 배관 교체 범위에 따라 폭이 큼니다. 아래는 **대전 인테리어 비용**을 가능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대략적인 범위이며, 정확한 금액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습식은 욕실 전체를 물청소하는 전통적인 방식이고, 건식은 물 쓰는 샤워 구역과 세면·변기 구역을 분리해 관리가 편한 방식입니다. 건식으로 구역을 나누면 유리 파티션과 마감이 늘어 시공 범위가 커지므로 비용도 올라가는 편입니다.



욕실 리모델링 예상 비용대(범위·추정, 실측 견적 기준 아님)

구분	소형(약 1평 내외)	중형(약 1.5평)	대형·부부욕실(약 2평~)
습식 기본형	약 180만~300만원	약 250만~400만원	약 350만~550만원
습식 중급형	약 300만~450만원	약 400만~600만원	약 550만~800만원
건식 분리형	약 400만~600만원	약 550만~800만원	약 700만~1,100만원

참고 · 위 금액은 지역·평형·자재 등급·현장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현장 실측 견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관 전면 교체, 방수 범위 확대, 수입 타일·고급 도기 선택 시 비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타일·도기·수전, 이렇게 고르면 후회가 적습니다

마감재는 눈에 보이는 만족도를 좌우하지만, 관리 편의와 안전까지 함께 따져야 오래 만족합니다.

- 타일: 바닥은 물기에도 덜 미끄러운 논슬립(미끄럼 방지) 제품을, 벽은 큰 사이즈로 줄눈을 줄이면 넓어 보이고 청소가 쉽습니다. 밝은 톤은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하고, 무광 그레이·베이지 계열은 물때가 덜 도드라지는 편입니다.
- 도기: 양변기는 청소가 쉬운 일체형·림리스(테두리 없는) 형태가 관리에 유리합니다. 세면기는 하부장 일체형으로 수납을 겸하면 좁은 욕실에서 동선이 한결 정리됩니다.
- 수전: 겉면 디자인만 보지 말고 내부 카트리지 품질과 A/S 부품 수급을 확인합니다. 해바라기 샤워·온도조절 수전은 편리하지만, 집의 수압과 배관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환기·조명: 습기가 오래 남으면 곰팡이의 원인이 되므로 환풍기 용량과 방습 조명·콘센트 등급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는 마감보다, 보이지 않는 방수와 배관에 예산을 먼저 배분하는 편이 오래 이득입니다.”



무아 시공 사례 · 만년동 강변

대전 욕실 리모델링, 현장에서 챙기는 것들

대전과 세종 일대는 입주 20년을 넘긴 아파트 단지가 많아, 욕실 리모델링에서 배관 노후와 방수층 손상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잦습니다. 무아인테리어가 **대전 욕실 리모델링**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걸면 타일이 아니라 배관과 바닥 방수 상태입니다. 오래된 단지일수록 눈에 보이는 마감보다 물길과 방수를 제대로 잡는 데 예산을 배분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담백한 화이트·우드 톤으로 마감하더라도, 그 아래 기본 공정이 튼튼해야 오래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욕실은 면적이 작아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방수와 배관처럼 한 번 뒤편면 다시 열기 어려운 공정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집 욕실이 어디까지 손봐야 하는지, 건식과 습식 중 무엇이 맞는지 궁금하다면 현장 실측으로 배관·방수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우선순위와 예상 범위를 함께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무료 상담과 실측으로 우리 집에 꼭 맞는 방향을 찾는 것이 후회 없는 욕실의 첫걸음입니다.

MU:A

INTERIOR

당신의 공간에,
무아를 담겠습니다.

공간을 비우고, 삶을 채우다

무료 상담 · 현장 실측 문의

@muadesign2025 · www.ttasum.com

정확한 견적은 현장 실측 후 안내드립니다.

☎ 010-9447-7622